



No. 89

IIIRI Online Series

한국과 정체성 정치 (Identity Politics)의 딜레마

한 승 주

고려대 명예교수, 전 외무부 장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2021. 6. 24



일민국제관계연구원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한국과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의 딜레마*



한 승 주 | 고려대 명예교수, 전 외무부 장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나(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누가 우리의 적이며 누가 우리의 친구인가? 이것은 바로 정체성(identity)의 문제로서, 국내적으로는 어떠한 지도자나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며, 국제적으로는 전쟁이나 연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50여 년간 세계는 냉전으로 인해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과 국가가 통솔하는 경제체제가 민주국가들과 시장경제들의 연합체와 경쟁하는 이념적 갈등의 세계를 만들어 냈습니다. 1991년에 와서야 냉전의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지 확실해졌습니다. 이러한 지각변동은 공산주의의 기수인 소련 제국의 와해로 시작되었습니다.

국제관계의 변동을 목격하면서 세계의 식자들은 냉전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특징지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였습니다.

* 본 온라인시리즈는 2021년 6월 11일(금) 한국 사회과학원과 중국 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준엽 선생 서거 10주년 추모 학술회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중교류: 과거-현재-미래"(온라인)에서 발표된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의 기조 강연, "한국과 정체성 정치의 딜레마"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세계 갈등의 역사는 끝났다고 결론 냈습니다. 즉, 서방세계의 정치적·경제적 체제가 승리하였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앞으로 세계의 새로운 규범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나마 세계의 최고 갈등 원인이 ‘이념’이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미국의 또 다른 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은 ‘문명의 충돌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100 퍼센트 정확한 예언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서방 세계의 민주 정치와 경제체제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문명의 충돌이라는 예언은 어느 정도 적중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 간의 양자 간 충돌만은 아니었습니다. 주저 없이 돌진하는 중국, 그리고 중국의 자본주의적이면서도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는 경제체제는 오늘날 민주국가들의 시장 자본주의에 막강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서방의 ‘테러에 대한 전쟁’은 그것을 주도하는 미국과 그 전쟁에 동조하는 국가들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및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 간의 적대화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지정학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패러다임(paradigm)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기에 맞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계가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체성’은 주로 인종을 중심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성(性)을 중심으로 하는 정체성, 과거의 피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성,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중심으로 하는 동질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현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다양한 동질성 또는 소속감이 만들어 내고 또 주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미국의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이 백인, 중산층의 미국인에게 동질감과 새로운 공격성 그리고 그러한 공격의 표적을 제공했습니다. 즉 유색 인종과 기득권 세력이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운동은 스코틀랜드(Scotland)의 민족주의를 자극하고, 영국인에게 영국적이라는 것(Englishness)이 무엇이라는 것을 다

시 의식하게 만들어, 영국 자체의 분열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그것이 1988년 벨파스트 협정(Belfast Agreement)으로 봉합된 가톨릭과 신교도 간의 갈등을 재현시킬 수도 있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는 국가의 정체성이나 민족주의가 그들이 유럽연합(EU)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제문제에서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나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대통령은 모두 그들이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강조하기 위해 민족주의의 고양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나라들도 공동의 적 앞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원칙 속에서, 국가들은 과거의 적도 친구로, 오늘의 친구도 미래의 적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새로운 밀월 관계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까지도 그들의 상대국인 미국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한 연합(marriage of convenience)’을 만드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려됩니다.

한국은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 있는가?

한국의 정체성 정치를 말하려면 ‘피해국 정치(victim politics)’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은 동북아에서 강대국에 둘러싸인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사실, 조선시대(1392~1910) 전체에 걸쳐 한국은 지역 정치에서 비교적 평화적이고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서 한국은 훨씬 참혹한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제2차 대전 후 승전국들에 의해 분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간 참혹한 전쟁을 경험하고 냉전의 이념 전쟁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분단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한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정의하는 데는 피해의식이 커다란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른 아시아 국가에 의해 식민화된 나라였

습니다. 중국은 침략을 당했지만 식민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반일 감정은 이념적으로 갈라진 남북한을 연결시켜 주는 하나의 통일된 정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남한의 한국인들은 해양세력들과 친화하고 세계화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과, 대륙세력과 연대하고 국내 문제에 집중하는 국내 지향적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3분의 1은 중국을 잠재적 적성국으로 생각하고, 다른 3분의 1은 미국을 잠재적 적대 세력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도는 50 퍼센트를 상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본에 대하여 적대적 심경을 갖고 있습니다.

해방이 되고 식민 통치가 끝난 지 75년이 지난 오늘, 아직까지 한·일 양국 간의 원한이 해소되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아야 합니까? 한국이 너무나 과거에 집착하는 것인가요? 일본이 과거에 대하여 성찰과 반성이 부족한 것인가요? 결국, 한국 사람들이 그들이 느끼는 과거의 불의에 대하여 과잉 대응하고, 일본은 그러한 한국인의 정서에 너무나 무감각한 것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한국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한국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역설적으로 과거에 제국주의를 추구하던 부유한 민주국가들인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등 국가들과 한국이 같은 배를 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제물이었던 한국의 정서가 정체성의 핵심인 한국은 과거 일본의 태평양 전쟁과 침략으로 처참한 고통을 겪은 중국과 같은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의 일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자석이 끄는 힘을 더 크게 해 주는 것은 중국이 한국의 세계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집권하기 전, 중국이 아직 자기주장을 세계적으로 고집하지 않을 때까지 이러한 중국의 모순된 존재는 한국에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한국의 민주적 우방국들에게 도전하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에 커다란 외교적 문제로 둔갑하였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을 동지로 생각하는 민주국가들과 맞상대할 자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진핑 치하의 중국이 이러한 도전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중국이 과거 제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으로는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서방에 대하여 공격적인 이유는 제국에 대한 향수보다는 20세기 초반 중국이 서방 국가들과 일본으로부터 받은 수모와 박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중국은 아편전쟁에서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동안 1860년 서양 군대가 북경의 여름궁전 원명원을 불태우는 수모를 겪었고, 1937년 일본 군은 남경에서 수십만의 중국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건들을 서방의 민주국가들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중국의 입장을 변호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등과 관련하여 중국이 강경 대응하는 것에 비판을 받을 때, 그것을 내정 간섭으로 치부하고 중국에 대한 비판에 대응했습니다.

피해국의 입장을 정권 방어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1950~1953년의 한국전쟁 시 북한을 폐허화시킨 미국의 폭력으로부터 인민을 보호한다는 미명으로 국민의 땀을 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은 표면에 보이는 것 같이 아무 탈 없는, 우애 깊은, 피해를 받은 형제지간의 관계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006년 10월 북한이 핵폭탄을 처음으로 실험한 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핵폭탄 실험을 자랑스러워하며 북한인들이, “이제는 중국 같은 이웃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 관계 설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다 같이 과거 제국주의의 피해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같은 조상을 가진 형제자매의 나라들입니다. 문 정부는 높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한을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는 미국과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이래, 한국은 놀랄 만한 경제적 성장과 교역에서의 성공을 이뤘습니다. 한국은 세계의 상업 발전의 덕을 보고 한국의 대기업들은 세계만방에서 그 존재를 과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성공의 배후에는 실용주의와 상업적 성공을 위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는 투명성이 부족했습니다. 외교의 원칙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니다.

오늘날 한국 외교를 간단히 묘사한다면 일본에는 비우호적이고, 중국에는 순응하고, 미국과는 협조한다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는 그러한 정책이 가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보다는 양자외교를 선호했고 외교 자체에 흥미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외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은 문재인 정부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직접적으로 한국에 ‘쿼드 연합(Quad, 미국, 호주, 일본, 인도)’에 가담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 정부가 쿼드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더 밀접하게 협력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쿼드 가입을 하나의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이는 쿼드에 가담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나토(NATO)형 동맹체제의 탄생에 과민한 중국의 반발을 유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한·미·일 3국 관계에 있어 미·일관계가 한·미관계보다 더 밀접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일미군의 숫자도 주한미군보다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은 또한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큰 교역상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국에 대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한국에 딜레마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쉽게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포함해서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사실이며 미국과의 동맹이 한국의 안보에 필수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한·미동맹은 전반적으로 한국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는 가능하면 한국이 미국과 북한 간에, 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6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G7+4” 정상회의에서 드러났듯이 현실적

으로 그것을 자임하기는 극히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으로서는 세계 문제를 토론하는 최고위급 회담에 초대받는 영광스러운 기회임은 틀림없었습니다.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네 개의 민주국가가 G7에 초대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의 국제적 위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G7의 전통적인 ‘가치’(인권문제 등)가 귀환했다는 사실, 또한 G7이 앞으로 G11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민주 국가 간의 토론장이 앞으로 불안정한 G20보다 더 초점 있고 체계적으로 가치문제를 취급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7 회의에 초대된 4국은 민주주의적 통치를 중요시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호주는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비용이 많이 드는 투자 분쟁에 중국과 휘말려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지난해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내며 히말라야 국경지역에서 난투극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한국은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한동안 중국의 경제제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호주는 이미 중국의 인권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열강들의 식민 경험으로 중국과 피해의식을 공유하는 인도와 한국은 중국에 대하여 인권 등 가치문제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중국을 비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은 이제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정쩡한 중간지대는 이제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입장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명백히 표현할 용기가 필요한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G7에 참가한다는 것은 커다란 업적이고 보너스이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완수해야 하는 어려운 사명을 떠맡은 것입니다.

21세기의 국제 세계는 한국과 같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눈앞의 제재가 무서워 난간 밑에 숨어 있어야 하는 입장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도 한국의 정체성에 따라 내야 할 목소리는 내고 그에 따르는 손비(損費) 처리도 해야 하는 용기와 결단을 과시할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편 가르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한국에는 많은 식자들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이 되기를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위스 방식의 중립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계에, 또 동북아와 같은 지정학적 환경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은 옵션이라는 인식이 식자들 간에 이미 퍼져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

저자 소개

한승주 교수는 현재 고려대 명예교수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고문을 맡고 있다. 한국 정부의 외교부 장관(1993~1994) 및 주미대사(2003~2005)를 역임하였으며,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사이프러스 담당)(1996~1997), 유엔 르완다 인종학살 조사위원(1999), 동아시아비전그룹 공동의장(2000~2001)을 수행하였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1978~2006)로 재직하였으며,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장(1995~2003), 고려대 총장서리(2002, 2006~2007)를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에 외교가 있는가」(2021), 「Korean Diplomacy in an Era of Globalization」(1995), 「Korea in a Changing World」(1995), 「Changing Values in Asia」(1999) 등이 있다. (Email: hansjrok@gmail.com)